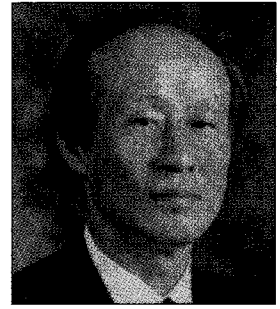


T-11형 국가표준파렛트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추진하자! -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



(사) 한국파렛트협회
상근부회장 박은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파렛트(일관수송용파렛트) T-11형(1,100mm×1,100mm)이 멀지 않아 (2003년 11월말) ISO 국제표준규격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금년 6월 23일부터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개최된 ISO/TC51 WG6 회의에서는 무려 8년간의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고 8월에 DIS 6780의 FDIS 최종투표를 실시하고 11월에 발행하는데에 합의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ISO 6780 규격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표준규격 파렛트로 T-11형이 유일하게 제시되어 규정되어있다. 이제 T-11형 파렛트를 국내는 물론 아시아에 표준규격으로 어떻게 보급을 확산시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추진하느냐 하는 과제가 주어져있다. 그간의 추진과정과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의 필요성 및 추진방법등을 살펴보자.

1. 파렛트의 국제표준화 역사

물류는 System이며 따라서 물류효율화는 효율적인 물류 System구축에 있다. 효율적인 물류 System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파렛트 표준화에 의한 일관파렛트 수송시스템 구축이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물류표준화를 통한 물류효율화의 출발점은 파렛트 표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파렛트표준화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계 표준화기구 ISO/TC51(파렛트 기술위원회)에서는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일관수송용 파렛트의 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파렛트 규격 제정 작업

을 1979년 1월 TC51회의(영국런던)부터 시작하여 1985년 10월 제10회 TC51회의(독일 함부르크)에서 ISO표준파렛트 규격을 결정하기까지 각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다툼이 계속 되었으나 ISO 파렛트규격을 단일화 하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던 것이다.

- ① 1,200mm×800mm (유럽표준규격 R198)
- ② 1,200mm×1,000mm (독일, 네덜란드 표준규격 R198)
- ③ 1,219mm×1,016mm (미국 표준규격 48"×40")
- ④ 1,140mm×1,140mm (호주표준규격 1,165mm×1,165mm)

(일본표준규격 1,100mm×1,100mm) 두개 규격의 절충선, 이규격은 -40mm 공차를 허용하여 일본의 표준규격인 1,100mm×1,100mm 규격도 ISO 표준규격임을 간접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1988년 ISO 6780 국제표준파렛트 규격이 제정되었으나 1992년 9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 13회 TC51 회의에서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위하여 WG6를 설치하는데 합의하고 1996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WG6회의에서 ISO 6780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ISO 6780 개정안>

구 분	규 격	
현 재	① 1,200mm×800mm ③ 1,140mm×1,140mm	② 1,200mm×1,000mm ③ 1,219mm×1,016mm
개정안	(정사각형) ① 1,140mm×1,140mm ② 1,100mm×1,100mm ③ 1,067mm×1,067mm	(직사각형) ① 1,200mm×800mm ② 1,219mm×1,016mm ③ 1,200mm×1,000mm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1,100mm×1,100mm규격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동노력의 결과 정식규격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수차에 걸친 WG6 회의를 거쳐 2000년 11월 DIS 6780으로 투표에 붙여졌으나 부결되어 2001년 5월 포르투갈 리스본 회의 재검토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강력한 재상정 요구에 따라 각국의 의견을 재 수용 검토하여 2002년 미국 올랜도 회의에서 DIS 6780Ⅱ로 재 상정 2002년 8월 투표에 붙여진 결과 94.5%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03년 6월 도르트문트에서 개최된 WG6회의에서는 2003년 10월에 최종 FDIS투표를 완료하고 11월에 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어져 우리나라의 표준파렛트인 T-11형 1,100mm×1,100mm

파렛트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ISO 국제표준규격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2.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의 필요성 추진방법.

이렇게 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국가표준규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제표준규격으로 확정될 예정에 있으나(10월 최종투표 통과 확신) 이 규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대표규격으로 확정된다해도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공동 물류시스템(예 : 아시아 파렛트 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물류효율화를 성취하기 위하여는 중국을 필두로 아시아 각국이 T-11형 파렛트를 자국의 표준규격으로 채택하고 자국의 물류시스템도 T-11형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구축하여야만 가능하다.

아시아 각국이 T-11형 파렛트 규격으로 표준화하여 일관파렛트 수송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효과는 실로 천문학적인 가치 창출을 가져올 것이다.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자원절약과 지구환경보호차원에서 그 효과는 막대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물류경쟁력 제고로 아시아 물류중심국 건설에 중요한 기초가 될 뿐아니라 물류산업의 대 아시아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아시아 국가가 함께 그 이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목표는 현실적으로 그 추진이 대단히 어려운 사업인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세계 각국의 물류표준화, 파렛트 표준화 사업이 그랬듯이 국내에서도 파렛트 표준화는 대단히 어렵고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파렛트 표준화율은 2002년 현재 약 30%이며(95년부터 본격적인 물류표준화 추진) 일본 또한 30여년동안 파렛트 표준화를 추진하여 왔지만(미국 60%, 유럽 90%, 호주 5%)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 1국가 내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므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사업은 더욱더 어려운 사업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이 있다.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먼저 아시아 각국의 파렛트 표준화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초로 각국이 자국의 국가표준파렛트 규격으로 T-11형을 채택하여야하며 이렇게 채택된 표준규격에 의한 자국내 전 산업계에 일관 파렛트 수송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여 파렛트 표준화가 추진될때 우리는 유럽과 같은선진물류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다.

3.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 (Asia Pallet Standardization Conference) 서울에서 개최 :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추진 상설 국제기구 설립추진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시아 각국의 T-11형 파렛트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를 기초로한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의하에서 아시아 각국이 자국의 국가표준파렛트로 채택되도록 하고 이렇게 국가표준규격으로 채택하여 자국내 산업계에 T-11형에 의한 물류표준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한·일 양국 파렛트 업계는 장차 아시아의 핵심으로 부상되는 중국의 산업계와 물류업계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관계 인사들의 국내 초청 연수, 현지 세미나(주로 북경, 상해)등을 개최하여 왔다. 특히 일본은 2002년 1월 일본경제산업성 후원으로 일본파렛트협회가 아시아 8개국 초청 파렛트 표준화 연수회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국파렛트협회는 2003년 10월 아시아 9개국(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의 산업표준업무담당관 및 파렛트, 물류업계 인사를 서울에 초청하여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 회의의 목적은 ISO 6780의 최종투표로 확정되는 T-11형 파렛트가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표준규격임을 주지시켜 T-11형 파렛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고 각국이 자국의 국가표준 규격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권장하며 이러한 상호 협력하에 아시아파렛트 표준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기구 창설 협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가 아시아 물류 중심국으로서의 기반을 닦는 핵심사업으로서 민간기구만의 추진으로는 불가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물류업계, 파렛트업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업계, 학계, 정부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빌어마지 않는다.

